



# 全南大學 同窓會報



<제481호> 1986년 5월 10일 창간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9월호>

## 전남대총동창회, 민주·인권·평화의 70년 '세대통합·지역연계·미래비전' 기치로 도약

### 2026년 창립 70주년...오는 10월부터 세대·지역 아우르는 다양한 기념 사업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학 총동창회를 창립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가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70주년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 오형석 이사장)'는 지난 8월 28일 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동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오형석 70주년 행사준비위원장(본회 이사장·탐솔그룹 회장)은 "70년의 역사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담은 스토리 중심 행사로 구성했다"면서 "재학생, 동문, 지역민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사를 설계했고, 기념사업 이후에도 후속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핵심 기치로 삼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주목할 만한 행사는 '민주길 평화걷기'이다. 이는 정의, 평화, 인권의 길로 구성된 전남대 '민주길'을 1시간 30분 이내의 통합 코스로 엮어, 선배 동문들의 역사 해설을 들으며 캠퍼스를 걷는 행사이다.

특히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총동창회 70주년의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뜻깊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은 주먹밥 나눔 행사와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한다. 전남대 5·18 광장과 민주마루 앞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동문, 재학생, 교직원, 가족들이 쉽게 참여해 세대 간 공감과

기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을식 지사 조형물 설치 사업'은 전남대의 시작을 되돌아보는 행사로 눈길을 끈다.

이을식 지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으로 도민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전남대학교 설립에 큰 공적을 남겼다.

1951년 9월 '전남대학교설립기성회'가 구성됐지만 전쟁 중이라 대학 설립 재원 마련부터가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현실에서 12월 취임한 이을식 도지사는 시장, 군수들과 유림대표, 도의회를 설득해 도민들의 성금, 일제의 패망으로 남겨진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의 주식과 향교재단의 농지증권으로 전남대 설립 재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도립인 광주농대, 광주농대, 목포상대 그리고 사립 대성대학의 통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초대 총장 최상채 박사의 추천, 용봉동 캠퍼스 부지 30만 평의 마련도 모두 이을식 도지사의 해안 덕분이었다. 이번 조형

물 설치 행사는 이을식 도지사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지역사회 음악회'도 용봉캠퍼스와 여수 캠퍼스에서 각각 개최한다. 트로트가수 양지은 동문을 비롯한 가수들과 동문 및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이외에도 회원명부 제작, 70년사 편찬,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사 탐방,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쌓기 모금 캠페인, 재학생 대상 아카데미 개설, 공식 SNS 콘텐츠 캠페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내년 6월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행사 주요 과정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하며 후속 기획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창립 70주년 행사는 전남대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과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초.대.합.니.다.

### 2025 제23회 전남대학교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동문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2025년도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 ☎ 일 시 : 2025. 10. 18. (토) 11:30 티오프  
(10:30~ 오찬, 티타임, 기념촬영)
- ☎ 장 소 : 무안C.C.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번지  
(도대리, 무안컨트리클럽) Tel. 061)450-9000
- ☎ 시상내역 :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니어리스트, 롱기스트, 행운상 등 각종 시상
- ☎ 참가신청 :
  - ① 신청기간 : 9/15(월) ~ 9/30(화) 18:00까지, 총 45팀(180명) 선착순
  - ② 참가자격 : 전남대학교 동문
  - ③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문자 062)528-9946 / 이메일 : cnud@hanmail.net
  - ④ 참 가 비 : 개인당 16만원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중식, 석식 포함)
- ※ 참가비를 납부하셔야 접수됩니다. (취소 환불 불가 - 동창회비 처리함)  
참가비 또는 후원금 납부계좌 : 광주은행 001-107-110440 전남대총동창회 (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기재)
- ☎ 교통 편 : 승용차로 각자 이동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드림

# 총동창회, 무안군 집중호우 복구 지원 따뜻한 나눔 실천

## 피해 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동창회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8월 5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무안군(군수 김산)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생활환경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안군은 해당 성금을 복구지원 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연대



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뜻을 모아주신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3월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돕기 위해 총 1,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전남대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1,688명 배출



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전남대는 개교 이래 학사 19만4,010명, 석사 4만1,876명,

박사 9,539명을 배출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의 영예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78명, 석사 542명, 박사 168명 등 총 1,688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동창회장상은 ▲최원호(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황토길(정치외교학과) ▲허진희(의류학과) 학생에게 수여됐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남대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48만 동문들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전남대(총장 이근배)는 26일 오전 10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제73회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졸업생 1600여 명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학과장, 교수진 등 대학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광주의 대동정신과 전남대의 AI 혁신을 동시에 품은 세대”라며, “모교가 길러낸 인재라는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AI시대를 이끌 리더로 당당히 성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 서남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 홍익병원

###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중증 치료 가능      24시간 안정된 진료

신속한 협진 및 전원      더 안전한 진료 환경

**홍익병원**  
HONG IK HOSPITAL

대표번호 02)2693-5555

간편예약 02)2600-0672 | 응급실 02)2600-0777 | 장례식장 02)2600-1444

# 총동창회장 초청, 전남대학교 동문 국회의원 간담회

## 서울 롯데호텔에서 40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열려



류혜경 총동창회장 초청, '전남대학교 동문 국회의원 간담회'가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 스위트에서 8월 25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주·서삼석 민주당 최고위

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민형배, 박상혁,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참석하여 모교 발전과 새병원 건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교에서는 이근배 총장과

보직교수, 정 신 전남대병원장과 보직교수,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임성주 서울동창회장,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과 오형석 이사장, 최희동·김제성 수석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전남대 동문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모교와 동문들의 자랑스러운 자랑이자 힘"이라고 전하며 "전남대 동문 국회의원으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지역·모교가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장은 "전남대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동문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서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창립 70주년 기념사업회' 5차 회의 열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창립70주년 준비위원회(위원장 오형석 이사장) 5차 회의가 8월 28일 '예가참치'에서 열렸다. 이날 7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 온 주요 행사와 사업안을 준비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또 각 사업별 세부안의 시행 시기, 예산, 진행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안을 확정지었다.



한편 70주년 준비위원회 4차 회의는 7월 25일 '회뜨는 마을'에서 열렸으며, 9월 30일에 마지막 6차 회의를 진행한다.

### ■ 22대 동문 국회의원 후원계좌 안내

우원식 (서울 노원구갑)	농협 301-0095-9928-11 우원식후원회
이학영 (군포시)	농협 301-0109-5898-91 이학영후원회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농협 301-0156-3112-01 이개호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농협 301-0235-8153-91 서삼석후원회
신정훈 (나주·화순)	농협 301-0274-1278-51 신정훈후원회
김병주 (남양주시을)	농협 301-0273-7468-21 김병주후원회
민형배 (광산구을)	농협 351-1131-8776-13 민형배후원회
박상혁 (김포을)	농협 301-0275-6252-31 박상혁후원회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농협 301-0350-9771-11 문금주후원회
안도걸 (동구남구을)	농협 301-0351-5677-01 안도걸후원회
양부남 (서구을)	농협 351-6610-0410-43 양부남후원회
전진숙 (북구을)	농협 351-1303-4256-53 전진숙후원회
정진욱 (동구남구갑)	농협 301-0352-1082-51 정진욱후원회
김상욱 (울산 남구갑)	경남은행 207-0175-9089-00 김상욱후원회



# 초.대.합.니.다.

## 2025 제15회 용봉인친선등산대회

동문들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등산대회를 개최합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 일 시 : 2025. 11. 1. (토)
  - ☎ 장 소 : 충남 예산군 봉수산 '백제부흥군길 제3코스'(산림청 선정 명품숲길)
  - ☎ 집 결 : 07:50, 전남대학교 용봉탑
  - ☎ 버스탑승 : (광주권 동문)
- |     |       |                           |
|-----|-------|---------------------------|
| 1호차 | 07:30 | 염주체육관정문 출발 - 07:50 용봉탑 도착 |
| 2호차 | 07:30 | 전남대학교병원 출발 - 07:50 용봉탑 도착 |
- 각자 편리한 곳에서 승차하여 모교 용봉탑에서 집결 후 차량배정을 다시함
  - 수도권 동문은 '전남대학교서울동창산악회'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 ☎ 준 비 물 : 등산복장, 중식, 식수 (참가비 없음) ★ 기념품 증정
  - ☎ 참가신청 : 10/21까지 아래 산악회 또는 총동창회 사무처로 접수(062-528-9946)
  - ☎ 산 약 회 : 전남대학교산악회,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서울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교수산악회, 전남대학교직원산우회, 전남대학교병원산악회, 전남대학교OB산악회 (7개 산악회)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드림

# 2025년 8월(제96차) 집행위원회 개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 2025년 8월(제96차) 집행위원회가 8월 26일 송하회관에서 열렸다. 집행위원회에서는 2026년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필요

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37대 총동창회 중점 추진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37대 집행위원회 상임부회장으로 홍은화(사범대·83, (전)녹동중 교

사, (전)서구체육회 이사), 박정웅(경영대·85, 리치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김영현(경영대·92,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동문이 함께하게 되어 집행위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한편 제96차 집행위원회에서는 홍기

천 상임부회장, 이성길 장학재단 감사, 김현화 상임부회장, 윤진학 예술대동창회장, 김경은 총동창회 감사를 37대 집행위원회 유사편성(2조) 하였다.

## 여수캠퍼스에서 '전남대 총동창회 간담회' 개최

류혜경 회장, 여수캠퍼스 동창회에 발전기금 전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8월 6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부총장실에서 열린 '전남대 총동창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노평우 여수캠퍼스동창회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홍민 부총장이 함께했다. 특히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정에 바쁜 가운데도 자리에 함께해 여수시 발전을 위한 전남대 총동창회의 역할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은 류혜경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여수캠퍼스 동창회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은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한 지 내년이면 20년이다"고 말하며 "창립70주년 행사로 진행하는 여수캠퍼스 통합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전남대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창회보에서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보도해 드립니다.

이메일 :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NGEF 2025

2025. 9. 17.(수)~18.(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2010 노벨물리학상

9.17.(수) 10:30

**시민특강**  
과학을 보다  
M. C. I. 함양찬 프로  
출연진 | 권석중 교수 | 김범준 교수 | 김선교 교수 | 우주먼지 지용배

9.17.(수) 18:00

**주요 일정 안내**

일정	프로그램
10:00 - 10:30	【내빈환영】 인사말씀, 피로연스 등
10:30 - 11:50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러시아)   박진호 명예 총장(식무대행)
11:50 - 12:30	행사장 투어
14:00 - 16:00	【세션 1】 AI for Energy
16:00 - 19:30	【시민특강】 함양찬 과학을 보다
10:00 - 12:00	【세션 2】 e2i Square & Innovation
14:00 - 16:00	【세션 3】 Energy for AI

주최 | 한국에너지공단 | 후원 | K-ENTECH | 주최 | 한국에너지연구원

# 광주공고총동창장학회(이사장 최희동) 2천만원 통 큰 장학금 전달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장학회(이사장 최희동)는 최근 '꿈·끼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7명의 학생에게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꿈·끼 장학금'은 성적 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진로에 대한 진정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대상 1명 1천만 원 1명, 500만 원 1명, 5명이 1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최희동 광주공고 이사장은 "창의 인재 양성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명문고는 좋은 선배들이 많은 학교가 아니라 훌륭한 후배들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라 발전을 선도하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꿈·끼 장학제도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공감하고 도전하는 학생이야말로 광주공고가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형 인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동 광주공고 총동창회장은 "스스로의 색깔을 잃지 않고 길을 개척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태호 광주공고 교장은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광주공고 총동창장학회는 8월 18일에 '2025학년도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1학년 학생 140여명 전원에게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광주공고 총동창장학회가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인 1학년들이 미래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총동창장학회는 2026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무등지구 모임 개최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영태) 모임이 8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두암동 '갯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영태, 김창현, 김

창호, 변연학, 강훈열, 양혜령, 김태훈, 정현철, 윤현두, 김효식, 강경민, 손희하 동문이 참석했다.

# 총동창회장 초청, 전라남도 동문 간담회



강위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축하패 전달 모습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초청, 전라남도 동문 간담회가 9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무안 남강회정식에서 열렸다. 이날 강위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문 전남도의원, 공직자를 비롯해 모교에서 이근배 총장, 고성석 연구부총장, 김용민 여수부총장, 조성준 기획처장, 박형규 대외협력부처장, 강지훈 기획연구본부장, 나인섭 교

무지원부처장, 김두운 교무부처장, 안영상 미래전략본부장이 참석했다.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오형석 이사장, 최희동 김제성 수석상임부회장, 윤영주 상임부회장, 김영필 사무처장이 자리에 함께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지역 동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분양


산업시설용지(제조, R&D, 유통)  
분양 진행 중

분양문의 : 062)600-6661~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국문 84학번)

 이근배 모교 총장 중앙일보 인터뷰

# AI 단과대 첫 설립 전남대, “AI·모빌리티 글로벌 거점대 만들 것”

“전남대는 2019년 9월 국내 국립대 최초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인 AI 융합대학을 설립·운영해왔습니다. 6년간 축적된 AI 역량과 데이터, 수준 높은 교수진을 토대로 AI와 모빌리티, 문화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호남 지역을 넘어 세계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점대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전남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연구를 통해 광주·전남도 전략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전남대 총장실에서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AI를 대학과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 국내 대학 중 AI 분야의 흐름을 주도해온 경험과 미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남대는 2018년 3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융합전공과 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 등 4개 융합전공을 신설한 후 이듬해 AI 융합대를 설립했다. 국립대 최초로 문을 연 AI 융합대는 입학정원 250명인 3개 학부에 104명의 AI 전임·겸임교원 등이 교육·연구를 하고 있다.

### 전남대가 AI 분야에서 낸 성과는?

= 6년여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AI 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탄탄히 구축해놓았다. AI 혁신공유대학과 지·산·학(地·産·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간 중심의 AI’ 비전을 실현할 토대도 갖춰가고 있다. AI 융합대는 설립 5년째인 올해 2월 첫 졸업생 109명을 배출했으며, 카카오와 한국전력, 현대차 등 대기업·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 AI대학의 발전 전략은?

= 전남대의 ‘AI+X’ 융합전략을 통해 고도화된 교육·연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AI와 모든 학문(X)을 합친 ‘AI+X’의 핵심은 대학 교육 전반에 융합전공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미래 산업적인 측면으로는 현장 맞춤형 교과 확대와 학생 실무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AI 인증제와 우수 내·외국인 교원 확충을 통해 세계적인 AI 연구성과를 내는 것도 목표다. 정부의 ‘글로벌 30’ 사업은 AI와 문화·인문 분야 결합된 인간 중심의 전남대 AI 비전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모빌리티에도 관심이 높는데.

= 전남대가 위치한 광주광역시에는 기아차광주공장 and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2개의 완성차 제조업체가 있다. 연간 72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제2의 자동차 도시의 역량을 AI미래모빌리티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대가 축적한 전기차·수소차 등 에너지모빌리티와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스마트모빌리티 역량을 산업계와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모빌리티 특화 방안은.

= 전남대는 2023년 9월 전남 함평군의 빛그린국가산단 안에 광주산학융합원과 빛그린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GGM과 기아차 등과 연계한 미래차 산업 인재를 산업계와 함께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인 빛그린산단에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 바이오 분야는 어떤가.

= 전남대는 AI 외에도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왔다. 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

너지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의력 기반의 연구·교육 성과와 기술 기반의 창업 역량을 토대로 지역 미래산업을 주도할 생태계를 만들겠다.

### 글로벌대학은 지·산·학 협력이 중요한데.

= 대학 경쟁력과 지역 상생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산업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광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반도체 인재양성 협약을 체결했으며, 광주·전남도는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공동 육성해가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의 연구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산·학 상생 협력의 밑바탕에도 ‘AI+X’ 융합교육이 있다.

정된 전남 화순의 백신특구 내 화순전남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임상시험 등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으로 '뉴 스마트병원' 시대 연다**



**NEW SMART HOSPITAL**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시작합니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사업기간 2021~2024년  
2020년 동산공동 투자 대상 / 2024년 제1회 준공 예정

**전남대학교병원**  
UNIVERSITY OF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전남대, AI·글로벌·지역상생 삼각축으로 미래 열다

전남대학교가 지역의 핵심 혁신기관들과 함께 '대학-지역 상생발전 연구 협의체'를 출범 시키며, AI 인재양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상생을 아우르는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에 전면 돌입했다.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학본부에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광주·전남의 9개 주요 혁신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지역 상생발전 연구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네트워크 구성을 넘어, AI 융합 인재양성,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광주·전남의 전략산업과 정주여건을 포괄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라는 핵심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이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대학과



지역 정책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연구·실행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하고,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가고 있다.

전남대는 이미 광주 지역의 AI 기술 집적도와 전남 지역의 제조·에너지·미래차 산업 등을 연계한 융합 교육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산학연 협력체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 인재 순환 구조 설계,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통해 지역 내 고급 인재의 유입과 정

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기관장들도 전남대가 주도하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야말로 지속가능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사람을 키우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오늘 출범한 협의체가 지역산업과 교육이 상호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고, 대학의 글로벌 도약을 지역과 함께 실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립대 1위 쾌거

전남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립대학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 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해 범정부적 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전남대는 국립대학 가운데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성장마루' 운영 사례로 1위에 올랐다. 행정 측면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표준화·통합 운영해 유사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실시간 운영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해지면서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재정 배분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기관 간 비교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러한 성과는 '2025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평가에 반영돼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3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은경 전남대 교육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성장마루'를 고도화해 AI 기반 비교과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학사와 비교과를 아우르는 통합 역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 대학 교육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대 국제항해실습단, 30일간의 국제항해 성료

전남대학교 국제항해실습단이 30일간의 항해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했다.

지난 6월 30일 여수신항 제3부두에서 출항한 국제항해실습단은 기관시스템공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생산관리학과, ICT수산자원관리연구소 등에서 선발된 98명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됐다.

실습단은 2996톤 규모의 최첨단 실습선 '새동백호'(선장 김대진 교수)를 타고 대만基隆, 일본 오키나와, 일본 하코다테를 거쳐 여수항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따라 연근해 및 국제해역을 항해하며 현장 중심의 해양 교육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국가 해기



사 면허 취득을 위한 1년간의 정규 승선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향후 외항선사 항해사·기관사, 해양경찰, 수산·해양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발판이 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항해실습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취업과 연

계된 실습 기반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이근배 총장은 "여러분은 한국 해양의 미래를 이끌 인재이자, 전남대학교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사절"이라며 "각 기항지에서 품격 있는 태도로 대학의 위상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남대, 교육부 '글로벌 랩' 선정 135억 국비 지원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교육부의 '글로벌 랩(Glocal Lab)'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대는 향후 9년간 매년 15억 원, 총 13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AI 융합 분야의 거점 연구소로 도약할 계획이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글로벌 랩 사업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지역과 국가 전략 산업에 접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남대는 이번 공모에서 ▲국방 무인체계 ▲AI 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등 지역과 국가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분야를 연계하는 연구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출범하는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는 ▲지능형 RF 시스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저피탐 통신보안 ▲Agentic AI ▲Physical AI 신뢰성 등 5대 연구 그룹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과 국가가 동시에 요구하는 미래 전략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통한 성과 확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핵심 기술인 거점식 무인 방어 체계와 이동식 무인작전 체계의 국산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2025년 1차 수석 이사회 개최

정치외교학과 동창회(회장 이승행)가 2025년 제1차 수석 이사회를 열고 수석상임부회장 및 임원진을 선임하고 주요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9월 10일 뜰안채에서 열린 수석이사회에는 이승행 회장, 수석 상임부회장 서일환·나이수, 수석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회장 신근수·서상우·박종천·김은형·김보영, 사무국장 박주선, 기획국장 고현영, 홍보국장 주성준, 조직국장 윤준호, 재무국장 홍준경 동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석 상



임부회장으로 서일환, 나이수, 김현동 동문을 새롭게 임명했다. 또 '동창회비 및 재정계획 보고'를 통해 연회비, 회원 경조사, 행사 준비, 모교(학과) 지원 등 재정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행사 및 연간 회의 일정 계획도 확정했다. 정치외교학과 동창회는 총동창회배 골프대회(10/8), 연합산행(11/1), 수석 이사회 트래킹(10~11월 중)과 정기총회 및 신년모임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김민수(전산·88) 동문, 전남대 제43대 교수회장 당선



전남대학교 제43대 교수회장으로 김민수(전산·88) 자연과학대학 교수가

등 고등교육의 대외적 정책 현안은 물론, 교원 복지 및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공약을 제시하며 경쟁했다.

김민수 교수는 '교수와 함께, 지역과 함께, 글로벌 대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교육·연구비 제도 개선 △실질적인 교수 복지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를 얻었다.

전남대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당선인은 입학본부장과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신임 교수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며, 교수회 출범 이후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교수평의회 본회의에서 교수평의회 의장으로도 선임될 예정이다.

당선됐다.

8월 7일 전남대에 따르면 제43대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전남대에 재직 중인 1,250여명의 교원이 참여했으며, 김민수 교수는 이 중 572표(투표율 53.36%)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거는 김진혁 공과대학 교수와 김민수 자연과학대학 교수의 경선으로 진행됐다. 두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글로벌 및 라이즈(RISE) 사업'

# ROTC동문회, 학생군사학교 하계병영훈련

ROTC 전남대 후보생 격려방문 실시

ROTC동문회가 지난 7월에 이어 2번째로 8월 13일에 전남대 후보생 괴산 하계병영훈련장을 찾아 격려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모교에서 고성석 부총장과 김대익 교학본부장이 함께 하였고, 이진용 회장, 박양수 고문, 김민호 부회장, 이은석 사무총장, 안재춘 감사가 참석했다.

동문들은 ROTC 전남대 후보생들에게 선배들이 마련한 후보생 간식비와 함께 박경섭 동



문(88,롯데제과 상무)이 협찬한 과자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교관들과는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글=이은석 ROTC동문회 사무총장

#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주관 호남 출신 출향기업 팸투어 열려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석기, 투자유치부장 최대범) 주관으로 열린 호남출신 출향기업 팸투어(AI/모빌리티/에너지)가 13개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팸투어에는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신석기 청장(경제·80), 투자유치부장 최대범(행정·87)과 김한호(화학공학·77), (주)케이엠에스크레비저 대표, 김재기(정치외교·84, 정치외교&AI융합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주임교수), 이성재(건축·82, 에너지글라스코리아 한

국지사장) 나현선(92·(주)거원 이사)가 참여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AI와 미래차 산업의 최적지로 성장 중인 광주의 경쟁력을 기업인들에게 직접 소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석한 수도권 동문 기업인들은 "국토 균형 발전 및 고향 발전을 위해 2차 팸투어 참여를 희망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글=서울동창회 위성암 사무1총장

# 쿠사(KUSA) 오옴회, 전국 쿠사60주년 행사 참여

전남대 쿠사(KUSA) 오옴회가 8월 23일 서울 TCC 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 KUSA 60주년 행사에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전남대의 위상을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 대학에서 300여 명이 넘는 오옴 회원들이 참석하여 새 물결 운동을 되돌아 보고, 유네스코 정신 3실천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 음악 경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국 쿠사60주년 행사가 이후 저녁에는 행사에 참여했던 전남대 쿠사 오옴 회원



동문들은 파주 쉼터로 이동해 1박 2일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세미나에서 손치근 동문이 본인의 저서 '형제국가 카자흐

스탄'을 동문들에게 증정하고 치매 관리와 예방에 대한 특별 주제 발표로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글= 서울동창회 박양수

# 한적한 숲길과 계곡이 반기는, 지리산 서산대사길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5년 9월 정기산행기

9월 6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아침부터 푹푹 찌는 불볕더위 속에서 경상남도 하동으로 향했다.

이날 산행지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서산대사길이다. 서산대사길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신흥마을에서 의신마을까지 화개천을 따라 걷는 4.2km의 길로, 지리산 옛길 중 일부다.

이 길을 서산대사길로 명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임진왜란 당시 5000여 명의 승병을 모아 왜군이 점령한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가 출가한 곳이 바로 의신마을 원통암이어서다.

지리산 옛길은 의신마을을 기점으로 북(北)으로는 계곡을 따라 삼정마을을 지나 벽소령까지, 남(南)으로는 천(川)을 따라 자리를 잡은 마을들을 차례로 지나며 화개장터까지 연결된다. 예부터 장사꾼들이 벽소령 고개 넘어 소금과 해산물을 함양으로 팔러 가던 길, 의신마을 주민들이 산나물과 참숯을 팔기 위해 화개장터로 가던 길이었다.

그 길 위 주막에서는 막걸리와 국밥을 팔고, 장사꾼 따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주막이 사라지고 인적이 끊겼다. 지금은 신흥마을과 의신마을을 연결하는 한적한 숲



길만 남아 있고, 여름이면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계곡을 찾아올 뿐이다.

의신마을 지리산역사관에 도착한 회원들은 서산대사길 입구로 이동한 후, 산행을 시작했다. 화개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 반달곰을 볼 수 있는 베어빌리지(Bear Village)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숲길이다.

숲길이라고는 하지만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을 만큼 편안했고, 의신마을에서 출발했기에 더욱 수월했다. 중간중간 만나게 계곡과 물 내려오는 길이 있어, 더위에 지칠 무렵 시원함을 더했다.

점심을 포함해 2시간 반 정도 산행을 마치고 신흥교 쪽 도로로 나왔다. 신흥마을에 도착한

회원들은 화개초등학교 왕성분 교장 아래 세이암 계곡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미리 준비해 간 통닭과 시원한 곡주를 나누며 피로를 날렸다. 적당한 시점에 쏟아지기 시작한 비를 맞으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10월 4일(토요일)에는 단풍·역사 산행을 주제로 함양 황석산을 가고, 11월 1(토요일)에는 충북 예산 봉수산에서 열리는 '용봉인천선등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양궁용 수석부회장 겸 수석총무(010-2533-5243)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 재경 의과대학 동창회 2025 골프대회 성료

재경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조길우) 2025년 골프대회가 8월 31일 진천 히든밸리CC에서 100여 명의 동문과 초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조길우 재경 의과대학 동창회장(33회)은 “이번 골프대회에 아낌없는 협찬을 해 주시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동



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전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동

문들이 참석해서 용봉인으로서 자긍심을 나누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 우승(신페리온)은 김문간(30회) 동문이 수상했고, 메달리스트(최저타)는 김성전(13회) 고문이 73타로 수상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성전, 장원익, 최낙원 전 서울동창회장과

박용우, 김민석 전 재경의과대학 회장을 비롯한 동문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동창회에서 임성주 서울동창회장 부부와 손철규 골프회장, 심재곤 수석부회장, 김원용 골프회 고문, 김애란(84) 남석우(85), 위성암 사무총장 등 서울동창회 임직원도 초청 참석해 재경 의과대 동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 “김선생의 광주사랑” ④4 광주가 낳은 나고야의 태양 선동렬

글·그림 = 김길남 (지리교육·77) 동문

한국 야구의 전설 선동렬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이다. 그는 광주 제일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투수로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봉황대기 1회전에서 경기고등학교를 노히트 노런의 기록을 세우면서 야구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1982년과 1984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연속으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그는 1985년에 광주에 연고를 둔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하여 프로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상대팀을 공략하여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1995년까지 11년 동안 거둔 선동렬 선수의 기록이다.

- 프로야구 통산 최다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3회(1986, 1989, 1990)
- 골든글로브 6회
- 3년 연속 투수4관왕(1989~1991)
-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가지 못했던 시기(1992, 1994)를 제외한 나머지 해의 평균자책점 부문 1위, 0점대 평균자책점 3회(1986, 1987, 1995)
- 44경기 연속 무패(1991.8.20~1993. 7.14)
- 탈삼진왕 5회
- 완봉승 29회
- 역대시즌 최저방어율 0.78.

그가 국내 프로야구 데뷔 후 남긴 통산 기록인 146승(최다)40패, 132세이브, 평균자책점 1.20도 한국야구의 전설로 남았다. 1996년에는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진출하여 주니치 드래건스에 입단하였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일본 정규시즌 최다세이브포인트 신기록인 38세이브를 기록했다. 1997년 1승 38세이브, 1998년 3승 29세이브, 1999년 1승 28세이브 등 3년 연속 30세이브 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4년 동안 단 4차례의 패전기록을 남기면서 ‘나고야의 태양’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 해태 타이거즈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이다.

1 김해곤(섬유·54) 동문 - 『세상, 그 길을 걷다』 출간

# 과학기술인 외길...“누군가에게 희망의 나침반이 됐으면”



전 용봉 리더스포럼 회장 김해곤(섬유공학과 54학번, 공학박사) 동문의

저서 『세상, 그 길을 걷다』를 읽은 독자로부터 호평이 많다. “책을 두 번이나 읽으면서 감동했다”, “그의 삶을 다큐 영화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순옥(화학·66)동문이 보내왔으며, “책을 읽고 감동하여 저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세종시 어윤수 독자)”는 연락을 취해 온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의견을 계기로 김해곤 박사의 저서를 본지면을 통해 널리 소개하고자

한다.

김해곤 박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서중과 광주고, 본교 섬유공학과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섬유업계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60년 국립공업연구소의 연구원에 잠시 몸담았다가 일신방직과 충남방직으로 자리를 옮긴 후 60년이 넘게 섬유업계 현장에서 일평생을 바친 진정한 ‘섬유업계의 거목’이다.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서 섬유기술 연수를 했다. 일본 연수과정은 그에게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일본을 이기면 세계를 이긴다”는 신념으로 섬유업계 발전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뒤돌아보면 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남은 삶은 누구에게든 희망과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과 절절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한 「사모곡」과 고향과 연관되

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투리가 바꾼 인생」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섬유업계 현장의 생생한 기록들은 저자의 신념을 알 수 있는 글이라 생각한다. 그 길에서 만난 김우중 회장, 김형남 박사, 이종성, 김창호, 이광호,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회장 등에 관한 글은 섬유업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특히 책의 말미에 1960년대 중반 연수에서 인연을 맺게 된 일본인 섬유 기술인과 그의 지인들이 인간 김해곤에 대한 글이 담겨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독자들은 ‘인간 김해곤’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삶에 막

대한 영향을 끼친 고향 영암, 조부와 어머니, 그리고 전남대와 동문에 대한 사랑이 짙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지금도 대학과 동문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그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섬유업계 유일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자인 김해곤 박사의 진솔한 칼럼집, 필히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통해 후배들이 김해곤이 걸어온 길과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뜻에 따라 동문 가운데 이 책을 읽고 싶은 분 선착순 50명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연락처 : 010-8650-0960 간행위원회)



## 더 높은 정상을 향한 첫걸음

나의 아만겔디봉 등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행이 아닌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천산산맥에 위치한 아만겔디봉은 비핵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산이다. 그 험준한 등반길은 국가와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닮아있다. 4천미터가 넘는 산을 오르며 마주한 두려움, 넘어짐,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개인과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의 은유다.

용기의 본질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C.S. 루이스가 강조했듯이 용기는 두려움을 안고도 행동하는 것이다. 인생의 네 가지 기본 덕목(분별력, 절제, 정의, 용기) 중 용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용기 없

이는 다른 어떤 덕목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만겔디봉 등반 중 넘어진 상태로 피를 보았을 때 에텔바이스 한 송이가 전한 ‘일어나라! 아만겔디봉이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용기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용기 덕분이었다.

G10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아진 대한민국은 이제 지역과 이념의 갈등을 해결할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때다. 그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용

기를 동시에 품는 데서 출발한다. 3,900미터 지점에서 마주한 암벽 외줄 타기처럼, 우리는 때로 아찔한 순간들을 마주한다. 하지만 발밑만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어령 교수의 ‘박애의 눈물’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우리가 피 흘린 혁명도, 땀 흘려 경제 부흥도 경험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 담긴 눈물이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러한 공감과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겸손을 외칠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길을 오르는 동반자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합과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용기와 겸손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아만겔디봉을 오르며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서도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과 역사, 그리고 타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고, 더 나아

가 세계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다.

발밑만 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합과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만겔디봉의 정상에서 바라본 광경처럼, 우리의 미래도 광활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손치근 (행정·74) 동문

현) 공익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 법학박사

#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전남대서 글로벌 도전기 공유

## 2025년 제1회 용봉포럼 성료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전남대학교에서 해외 정착과 글로벌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7월 15일 오후 2시 용봉홀에서 '2025년 제1회 용봉포럼'을 개최하고, 박 회장을 초청해 '세계를 향한 도전,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에 대한 공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종범 회장은 강연에서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 법인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에 남아 자동차 부품 사업에 도전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영산그룹의 글로벌 제조업 진출을 이끌었으며, '영산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철학 아래 오스트리아 본사를 중심으로 러시아, 아프리카,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꼼꼼한 프로젝트 운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력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종범 회장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제22대 회장과 주한 니제르 명예영사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경제 협력과 해외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공로로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금장 훈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이날 강연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장을 찾았으며, 전남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개방되어 용봉홀 264석이 모두 채워지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대외협력처가 주최하는 용봉포럼은 사회 각계의 리더들을 초청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강연 프로그램이다.

#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기탁...“모교의 발전을 응원”

### 정미라(철학·80) 전남대 교수



전남대학교는 정미라(철학·80) 철학과 교수가 인문대학 2호관 개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정미라 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친 뒤 2006년부터 전남대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인문학의 대중화와 학문적 확산에 기여해왔다.

정미라 교수는 당초 정년퇴임을 앞둔 내년 2월 기부를 계획했으나, 최근 인문대학 2호관 개축 소식을 접하고 교육연구시설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기부로 정미라 교수의 누적 기부금은 총 1,243만원 달한다.

정미라 교수는 “전남대에서 교수로 재직할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시기였다”며 “그 고마운 마음을 오래 간직해오다 인문대학 2호관 개축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 오상은(간호·76) 전남대 명예교수



전남대학교는 “오상은(간호·76)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7월 9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미래간호교육관 설립 및 실습실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이 담겼다.

오상은 교수는 전남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과학연구소장, 평의원회 및 교수협의회 부회장, 한국아동간호학회 제23대 회장 등을 역임했고 제8대 간호대학장을 맡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학장 재임 시절에는 졸업예정자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합격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교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학생 지도에 힘쓴 오 교수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은 교수는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대준(기계공학·90) ㈜국보 대표이사



정대준(기계공학·90) ㈜국보 대표이사가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정대준 대표는 주택 건설업체 ㈜국보를 이끌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매년 1,000만원씩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계공학부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남대 발전기금을 통한 직접 기부로 방식을 전환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부로 정대준 대표의 기계공학부 누적 기부액은 총 5,000만원에 달한다.

정대준 대표는 “전남대학교와 기계공학부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매년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금은 기계공학부 학생 장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이메일 : [cnud@hanmail.net](mailto: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서삼석(NGO 박사) 동문

##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호남발전특위 위원장 지명



서삼석(NGO 박사) 동문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3선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엄중한 시기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게 됐다. 호남 발전의 지렛대이자 당·정 핫라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여당 상설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호남권 3개 광역지역별로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여명(권역별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 호남고속철 2단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총괄하며 국가적 지원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박응렬(농학·77) 부회장

## 산티아고 스쿨 개강



박응렬(농학·77) 부회장이 2025년 산티아고 스쿨 봄강좌에 이어 가을강

좌를 광주와 부천에서 운영한다. 산티아고에 대한 인문학적인 내용에서부터 산티아고 순례 준비하기, 까미노 준비할 때 떠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등 산티아고 순례를 준비하는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광주카톨릭대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산티아고 스쿨은 주중반[9.8~9.29(월) 19:00~21:00 (2시간씩 4회)], 주말반[9.20~9.27(토) 09:00~13:00 (4시간씩 2회)]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4만 원이다. 접수에 관한 문의 사항은 광주카톨릭대(380-2210~4)로 하면 된다.

■ 김준영(무역·87) 동문

##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임명



광주광역시는 7월 1일자로 실시한 전보 인사에서 김준영(무역·87) 동문이 2급 시민안전실장에 승진 배치됐다.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김준영 동문은 도시공간국장, 교통, 건축, 자치, 문화 등 시정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복합적 재난 대응과 안전 민원 관리, 도시철도 공사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송기희(사회·81) 동문

## 아태지역회의 말레이시아 참석



송기희(사회·81) 동문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025 BPW 아시아·태평양 지역 컨퍼런스'에 참가해 한국여성의 리더십과 K-컬처를 알

리는 성과를 거뒀다. 송기희 동문은 전문직여성한국연맹(BPW Korea Federation) 무등클럽(류명주 회장) 문화예술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송기희 동문은 문화예술위원장은 “광주지역 젊은 여성인재를 발굴해 국내외 네트워킹을 제공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박준기(농업경제학과·86) 동문

##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취임



박준기(농업경제학과·86, 한국농종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동문이 (사)한국농업경제학회 제4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박준기 동문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7년 농경연 입사 후 공익

직불제 개편 등 농업경영안정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동 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정책개발연구 기여 공로로 국민포장(2021.12)을 수여 받았다.

### 태리인더스트리(주)

임은태 대표이사 / 공학박사  
(공과대학 86/본회 대표이사)

- 수처리용 미생물계 약용 제조
- 수질관리대행 (공공하수, 폐수)
- 수처리 대기 설비, 산기관 제조
- 수질측정대행업
- 수질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종합세운전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061-336-2588 / FAX.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 광주현대병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50604-중-190826호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진료과		센터/클리닉		진료시간
내과	산부인과	종합건강검진센터	알노병센터	평 일 AM 8:00 ~ PM 7:30 토요일 AM 8:00 ~ PM 12:30
외과	소아청소년과	척추관절센터	영상진단센터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유방·갑상선센터	물리치료실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화기센터	인공신장실	
신경과	피부병중독의학과	진단영상의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91 (용봉동, 북부경찰서 부근) ☎570-0114

민사·형사·부동산·행정·소송, 기업자문·가사·이혼·상속 분쟁

### 법무법인 가현

대표변호사 최정희 (사법직 92학번)

광주광역시 동구 치산로85번길 11-9(치산동) 변호사회관 옆  
Tel . 062-236-0222 Fax . 062-236-0608  
Mobile . 010-3000-6028 E-mail . choi092@hanmail.net  
[www.welaw.co.kr](http://www.welaw.co.kr)

■ 김덕수(경제·89) 동문

‘나주를 걷다, 사람을 만나다’



나주에서 자라고 성장해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2급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김덕수(경제·89) 동문이 3년 동안 100여 마을서 만난 1천 명의 삶을 기록한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김덕수 동문이 마을을 걸으며 나주의 과거, 현대, 미래의 모습을 담고 나주에서 오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새로운 나주’를 꿈꾼다. 김덕수 동문은 20여 년간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광주 교통방송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을 진행하기도 했다.

■ 배우균(의학·92)·방현진(의학박사) 동문

‘젊은 연구자상’ 수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은 종양내과 교수 연구팀 배우균(의학·92)·방현진(의학박사) 동문이 이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MO 2025)’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어 전남대학교병원의 연구능력을 입증했다.

■ 김익성(기계공학·14) 동문

KIER 선임연구원 임용



김익성(기계공학·14) 동문이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 AI 시스템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됐다. 김익성 동문은 전남대에서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박상혁(법전원 석사) 동문

‘단단하게’ 북콘서트 개최



박상혁(법전원 석사, 김포을 국회의원) 동문의 두 번째 북콘서트 ‘단단하게’가 9월 6일 김포아트홀에서 지역 단체장 및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동문 의원 등 22명의 동료 국회의원과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본회에서는 화환을 보내 축하를 전했고 서울동창회에서 임성주 회장과 6명의 임원 및 세아상역 임원 등이 참석했다.

■ 안영근·김민철 전남대병원 교수팀

세계 의학 학술지에 논문 게재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순환기내과 안영근·김민철 교수팀의 임상 연구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영국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영근 교수는 지난 2021년 전남대병원 의료진 중 처음으로 ‘란셋’에 논문이 발표된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게재되는 기록을 세웠다.

■ 신호재(미술·83) 동문

‘Rumination’ 전시회



서양화가 신호재(미술·83) 동문의 전시가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나주미술관에서 열렸다. ‘Rumination’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는 대작 등 20여 점 작품이 출품됐다. 신호재 작가는 이번에는 캔버스가 아닌 골판지라는 독특한 재료를 매개로 그 재질감을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09월 27일(토) 광주지역 4개대학 골프대회
- 09월 29일(월) 용봉대동풍이 개막식
- 09월 30일(화) 제6차 동창회 70주년 준비위원회의
- 10월 18일(토) 총동창회장배골프대회
- 10월 20일(월) 용봉리더스 포럼
- 11월 01일(토) 용봉인친선등산대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8월 5일 무안군 수해복구 성금 전달식
- 8월 6일 여수캠퍼스동창회 간담회
- 8월 25일 동문 국회의원 간담회
- 8월 26일 전남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
- 8월 26일 제96차 집행위원회
- 8월 28일 제5차 70주년준비위원회의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mailto:cnud@hanmail.net)

www.iotpluskorea.com

ICT전문기업  
**아이오티플러스(주)**  
Add Value with IoT

IoT에 가치를 더하여 세계로 비상하는 솔루션 전문기업

아이오티플러스(주)는 IoT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ICT분야 기술 서비스를 확장하고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에너지 ICT 전문 기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ICT 에너지 솔루션

IOT PLUS

**함께 우뚝**

대용 고액  
대지 부당  
비내 리방

소상공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금융마스터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의 희망을 보증드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 062-960-0011

**광주신용보증재단**  
Gwangju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류혜경 배상

### ▷ 임원회비 ◁

회장 : 3,000만원 이상	고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사 : 200만원 이상	상임이사 : 30만원 이상
이사장 : 1,500만원 이상	자문위원 : 30만원 이상	부이사장 : 200만원 이상	부회장 : 50만원 이상	이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2025년 1~6월 분

#### 임원회비 (1월 1일~6월 30일)

회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최상준(건축공학·58)	30만원
▲허정(의학·70)	50만원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고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라석찬(의학·57)	5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이연익(수학·63)	3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김안자(간호·62졸)	50만원
▲이정재(정치·25기)	20만원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영(화학공학·72)	3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김주현(경제·75)	30만원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오광인(임학·65)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200만원
상임부회장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종선(의학·92)	300만원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양부남(법학·80)	5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이지현(경제·08)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정민호(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강승희(농학·97)	200만원
장학재단 감사	
▲김정민(회계·90)	50만원
단과대회장	
▲박숙령(간호·74)	50만원
▲손희하(국어국문·75)	50만원
▲서해현(의학·75)	50만원
▲박연옥(식품영양·90)	50만원
부회장	
▲강훈열(사법·86)	50만원
▲고병일(경제·84)	50만원
▲김남균(원예·82)	50만원
▲김명군(사학·85)	50만원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성원(경영·80)	5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30만원
▲김재필(축산·82)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중춘(무역·78)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노진양(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인(토목박사·96)	50만원
▲문재웅(기계공학·85)	50만원
▲박매호(농학·87)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박원(행정·85)	20만원
▲박준수(경제·83)	20만원
▲박현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손해수(수학·85)	30만원
▲심재연(간호·76)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오유나(영어교육·92)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승룡(건축·78)	50만원
▲이연풍(경관·14기)	5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임현정(전산·94)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남(미술·90)	1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최춘태(농학·81)	15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이사	
▲정경훈(약학·11)	20만원
▲전미희(식물생명공학·9)	20만원

#### 평생회비 (1월 1일~6월 30일)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하주애(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마영완(화학·83졸)	50만원

#### 연회비 (1월 1일~6월 30일)

간호대학	
▲김혜영(간호·91)	
▲남상옥(간호·68)	
▲문정선(간호·74)	
▲서향자(간호·67졸)	
▲안정옥(간호·77)	
▲이종임(간호·82)	
▲최영재(간호·73졸)	
경영대학	
▲강대성(무역·76)	
▲강부암(회계·90)	
▲김선윤(경영·83)	
▲김영근(경영·87)	
▲김영철(경영·75)	
▲김원호(경제·65)	
▲김윤근(회계·82)	
▲김재인(경영·83)	
▲김태수(경영·80)	
▲민화식(경제·58)	
▲박병춘(경영·80)	
▲봉필삼(회계·83)	
▲소홍석(무역·74)	
▲송천식(무역·58)	
▲윤명호(무역·67)	
▲이문규(무역·87)	
▲이승국(행정·90)	
▲정선호(무역·77)	
▲최성주(경제·80)	
▲한동철(무역·75)	
▲한성수(회계·82)	
공과대학	
▲강대욱(토목공학·58)	
▲강진해(금속공학·72)	
▲김관현(토목공학·61)	
▲김부용(화학공학·71)	

- ▲김선식(화학공학·69)
- ▲김성귀(토목공학·79)
- ▲김영남(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용백(건축공학·68)
- ▲김용재(금속공학·70)
- ▲김인구(토목공학·80)
- ▲김종근(건축공학·72)
- ▲김진하(화학공학·69)
- ▲김현호(금속공학·68)
- ▲김형주(화학공학·80)
- ▲박동주(전기공학·61)
- ▲박순식(토목공학·83)
- ▲박종호(토목공학·77)
- ▲백부선(화학공학·55)
- ▲변영재(요업공학·68)
- ▲서금렬(공업화학·85)
- ▲서정철(전기공학·68)
- ▲손동일(건축공학·83)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병수(기계공학·72)
- ▲오상용(화학공학·69)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윤재화(토목공학·58)
- ▲이병길(화학공학·58)
- ▲이은수(기계공학·81)
- ▲이재동(토목공학·71)
- ▲이한묵(토목공학·58)
- ▲이한민(토목공학·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현성(토목공학·73)
- ▲이형섭(금속공학·76)
- ▲장상욱(전기공학·72)
- ▲장 희(화학공학·77)
- ▲정달성(전기공학·72)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한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조대우(요업공학·69)
- ▲지영섭(금속공학·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양석(화학공학·89)
- ▲최연수(금속공학·81)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김을수(임학·79)
- ▲박금중(농학·73)
- ▲박인진(농학·66)
- ▲변연학(임학·67)
- ▲서영권(농학·69)
- ▲신동길(농업경제·86)
- ▲심재윤(농학·71)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옥(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정구선(임학·58)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강훈열(사법·86)
- ▲김길원(법학·65)
- ▲김병해(법학·77)
- ▲김성흠(사법·91)
- ▲김철영(법학·57)
- ▲나현숙(공법·87)
- ▲문동길(행정·78)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배상호(법학·67)
- ▲유영성(법학·79)
- ▲윤서강(사법·86)
- ▲이두백(법학·69)
- ▲이승국(행정·90)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최준동(행정·71)
- ▲최태화(법학·58)
- ▲황의봉(법학·58)

**사범대학**

- ▲김종해(지리교육·81)
- ▲박경자(지리교육·79)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사회과학대학**

- ▲김석병(사회·78)
- ▲김양순(심리·87)
- ▲김형국(정치외교·72)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송재기(정치외교·72)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헌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수리과학대학**

- ▲고진구(수리학·73)
- ▲고태오(수리학·80)
- ▲문무광(수리학·61)
- ▲문병현(수리학·73)
- ▲백병선(수리학·72)
- ▲성광일(수리학·53)
- ▲안익순(수리학·69)
- ▲유동현(수리학·56)

**약학대학**

- ▲김영란(약학·86)

**의과대학**

- ▲김종성(의학·77)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손석준(의학·76)
- ▲안영안(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 ▲최정섭(의학·79)
- ▲허인무(의학·53)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류순범(영어영문·76)
- ▲박창준(중어중문·84)
- ▲신남영(국어국문·81)
- ▲엄철주(영어영문·79)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지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치과대학**

- ▲최준규(치의학·87)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경영전문대학원**

- ▲강대일(경관·27기)
- ▲고병선(경관·29기)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유병진(경영석사·90)
- ▲이학재(경치·21기)
- ▲임종학(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 ▲황경태(경영석사·94)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 ▲문 인(토목석사·95)

**산업대학원**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 ▲권오진(토목공학·12)

**정책대학원**

- ▲김흥태(행정·5)
- ▲신승수(행정·2)
- ▲심재록(최고정책·14기)
- ▲오승준(행정·91)
- ▲윤인후(행정·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 ▲한동석(행정·99)

**단과대학불분명**

- ▲김종민
- ▲무기명(00·00)

2025년 7~8월 분

임원회비 (7월 1일~8월 31일)	
상임교문	
조국현(의학·61)	50만원
교 문	
이정재(경치·25기)	10만원
자문위원	
김경호(경영·86)	30만원
김대중(철학·79)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신종봉(수리·71)	30만원
단과대회장	
이만선(경관·25기)	50만원
부회장	
강상규(행정석사·95)	50만원
김윤세(경치·10기)	50만원
김재찬(행정석사·12)	50만원

김진혁(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나수진(농생물·88)	50만원
선종아(낙농·86)	50만원
양혜령(치의학·81)	20만원
최현진(무역·89)	50만원

연회비 (7월 1일~8월 31일)	
간호대학	
최선례(간호·60졸)	
경영대학	
김남규(회계·84)	
김정호(무역·79)	
임문규(경영·73)	
홍장표(경제·55)	
공과대학	
류정균(화학공학·84)	

정우섭(화학공학·70)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재익(농화학·68)	
최안성(축산·82)	
한태호(원예·88)	
생활과학대학	
박미림(의류·80)	
의과대학	
윤영의(의학·61)	
인문대학	
성낙준(사학·72)	
이성규(영어영문·81)	
자연과학대학	
문점호(생물·73)	
치과대학	
전상민(치의학·00)	

법학전문대학원	
차기현(법학석사·10)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류인섭(원예·95)	
유영선(기계공학·01)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치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 Namdo International Culinary Expo

#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

2025. 10. 1. - 10. 26.

목포문화예술회관 / 평화광장 / 원도심 일원



##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

Where Nature Meets Flavor,  
Where Ocean Greets Taste